

세계도시

2007. 1. 15 제159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미국 워싱턴주의 교통데이터 관리와 활용

도시경영·경제

1. 상점가 파워 업(Power up) 기금사업 실시 (동경)
2. 시민 불편을 신고하기 위한 통합 전화번호 설치 예정 (독일)
3. 파트너 법인의 결산 결과 2000년 이래 최고 성적 달성 (베를린)
4. 도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동경)
5.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펀드 운용자 결정 (동경)
6. 100여 개 기업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북경 석경산區)

복지·문화

7.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직업영역 개척 지원 (동경)
8. 인터넷과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패밀리 e를' 작성 (동경)
9. 상인협회와 시민 협조로 거리 조명축제 개최 (파리)
10. 市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박물관 주변부지 매입 (베를린)
11. 시민 의견에 기초한 도시 문화정책 수립 계획 (뉴욕주 오렌지카운티)

도시환경

12. 환경교육 촉진을 위해 환경 장학금 지원 (캘리포니아주 산호세市)
13. 탄소 무배출 주택 구매에 따른 인지세 감면 혜택 추진 (영국)
14. 우기에 대비해 하수 범람과 역류 방지 프로그램 운영 (캘리포니아주 베이 지역)
15. 장기적으로 유효한 환경건설 시스템 가동 (북경 조양區)

도시교통

16. 자동차의 유아전용 좌석 무료 점검 및 자전거 헬멧 무료 배부 (뉴욕)
17. 교통연대카드(Carte Solidarit Transport) 할인혜택 확대 (일드프랑스州)
18. 2006년 길 만들기 성과지표 계획 발표 (동경)
19. 도시 교통체증 학술연구센터 설립 (북경)

도시계획·건설·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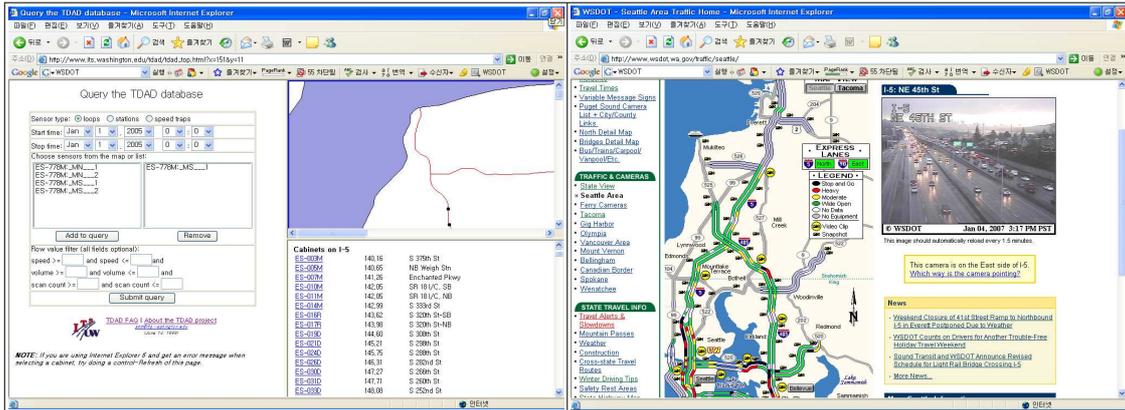
20. 거리 시설물 개선에 관한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시행 (뉴욕)
21. 맨해튼 3번 주거지구 리조닝(Rezoning) 계획 초안 공개 (뉴욕)

[벤치마킹 사례]

미국 워싱턴주의 교통데이터 관리와 활용

<주요 내용>

미국 워싱턴주는 교통관리센터에 수집되는 누적 교통데이터로 교통 관리, 신호 제어, 정보 제공 등 지능형 교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 이용자(Stakeholder)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ITS(첨단 교통체계)에 수집되는 교통데이터를 교통계획, 운영·관리, 교통시스템 평가에 활용해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교통데이터의 또 다른 활용방안이다.



웹사이트를 통한 교통데이터 관리 및 정보 제공

TRAC(Washington Transportation Center)와 TDAD(Washington Traffic Data Acquisition and Distribution)는 교통데이터 관리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퓨젯사운드(Puget Sound) 지역의 고속도로 관리시스템과 각종 ITS 관련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교통 관련 데이터는 교통 운영 및 관리에 이용할 뿐 아니라 워싱턴대학교와 워싱턴주립대학교, 워싱턴 교통국을 중심으로 지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분석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관리센터의 누적 교통데이터는 행정기관의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정책의 의사결정 지원 기능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설 및 평가>

워싱턴주는 ITS에 수집되는 교통데이터를 가공해 단순히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벗어나 동적(動的) 교통환경을 감안한 교통체계 분석과 예측을 통해 현실적인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정책 수립 시에 TRAC와 TDAD의 이력 교통데이터를 활용해 장래 교통정책 대안에 대한 사업효과를 예측하고 타당성을 검증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정책 도입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 중인 정책대안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 의회는 교통사업 및 정책의 예산 배분 근거자료로 TRAC과 TDAD의 누적 교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TRAC과 TDAD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교통데이터를 가공·저장·분석해 다양한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 데이터를 서브시스템,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교통데이터를 활용해 다인승차량(HOV) 차로 성과 분석과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 특별행사 시 차로 운영계획 평가, 램프 미터링 운영 관리 및 도입 검토 등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는, 1999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을 통해 국내 ITS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기틀이 마련된 뒤 구축된 도시 고속도로 관리시스템(FTMS), 남산권 관리시스템, 新신호교통관리시스템과 교통방송국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양질의 교통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위계 정립 미흡과 교통데이터 관리서비스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교통데이터 활용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벤치마킹 시행방안>

벤치마킹에 앞서 미국 워싱턴주와 서울시의 각종 교통문화나 교통시설 등 교통여건 비교분석과 법·제도적 검토를 먼저 해야 하며, 워싱턴주 사례를 서울시 교통데이터 관리 및 제공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첫째, 서울시에 적합한 교통데이터 관리 서비스 구축은 관련 기관의 교통행정 수요와 교통 전문가의 수요 조사를 통해 기존 교통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서비스 환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내용, 제공 시기 등을 파악해 서울시 실정에 적합한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서비스를 구축·관리해야 한다. 둘째, 거시적 차원에서 교통데이터의 위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교통데이터의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교통데이터의 상호 호환을 위한 각종 표준화 작업과 연계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셋째,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른 교통계획 수립과 교통정책 개발 등 과학적인 교통행정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교통데이터 관리서비스에 근거한 교통계획, 운영계획 및 교통정책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벤치마킹 기대효과>

교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 과학적 분석(수요 특성, 서비스 수준, 최적화)을 통한 교통정책 수립 및 평가는 교통정책의 신뢰도와 효과를 높이게 되고 이는 對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 교통계획 수립의 질적 향상과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고, 교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가공함으로써 도시교통체계의 성과지표를 수집,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교통데이터 활용 분야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환경, 도시문제, 기타 도시기반 요소 영역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서울시 시민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김원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wonor@sdi.re.kr)

1. 상점가 파워 업(Power up) 기금사업 실시 (동경)

동경都와 (재)동경都 중소기업진흥공사는 2006년부터 임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상점가 활동이 정체되고 빈 점포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점가 파워 업(Power up) 기금사업을 시작했다. 이 기금사업은 상점가가 설립한 회사와 상점가가 협정을 맺고 새롭게 실시하는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동경都는 최근 3개 사업을 선정했다. 첫째, 지역창조센터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사업이다. 먼저, 지역주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한 후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독자적인 상점가 평가 프로그램으로 진단해 지역에 내재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형성, 상점가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둘째, 제2차 오키나와 타운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키나와 관련 점포를 유치하고 현재 상점가가 운영하는 오키나와 물산 소매점을 회사 직영 형태로 바꿔 영업을 강화함으로써 오키나와 타운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지유가오카 전자안내판 시스템 제2기 구축사업이다. 상점가에 대형 전자안내판을 설치하고 상점가 정보와 광고를 효과적으로 배치해 각 점포의 매출 증가와 광고료 수입 증대를 꾀함으로써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동경都는 이들 사업에 대해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할 계획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2/20gcq5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상점가 활동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동경都가 실시 중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지역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과 전문가 의견 반영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재래시장 및 유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남대문 시장이나 용산 전자상가 등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박희석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hspark@sdi.re.kr)

2. 시민 불편을 신고하기 위한 통합 전화번호 설치 예정 (독일)

도로 표면의 파인 곳이나 정류장의 오물, 행정 관련 신청서 작성 시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전화번호가 독일에서 곧 설치될 예정이다. 시민이 행정관청에 대한 불만을 어디서나 115번으로 신고하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와 주, 지자체의 모든 관청이 기술적으로 네트워크화돼야 한다. 늦어도 2007년 3월 1일부터 관련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통합 전화번호는 뉴욕에서 현재 시행 중인 311 통합번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455144,00.html)

3. 파트너 법인의 결산 결과 2000년 이래 최고 성적 달성 (베를린)

베를린市 경제부가 주최한 ‘2006 베를린시 파트너 법인 결산’에서 롤란트 엔겔스(Roland Engels) 법인 회장은 2006년이 2000년 이래 가장 성공적인 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베를린은 경쟁력을 더 회복해야 하며 베를린 경제를 좀더 세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88개 기업이 베를린 파트너 법인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정착했고, 이들 기업은 베를린시에 300만 유로(약 37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투자로 47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88개 기업 중 38개 기업이 IT 분야고 22개 기업은 서비스 분야다. 이 외에도 건강경제 클러스터(13개), 이동통신 분야(15개) 등이 있다. 일자리 구성을 살펴보면, 서비스 직종이 1950개로 가장 많고 IT 관련 업종이 1300개, 이동통신 분야가 900개, 건강기업이 600개 등이다. 베를린 파트너 법인의 로프 엑크로트(Rolf Eckrodt) 감사역 회장은 외부경제 지원과 도시마케팅, 기업 정착을 ‘베를린 파트너’라는 개념 안에서 통합한 구상이 옳았다면서 이러한 새 구조는 적합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6/12/13/51939/index.html)

4. 도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동경)

동경都는 최근 ‘도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의식과 도정에 대한 바람 등을 파악해 도정 운영에 활용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도정에 대한 희망사항은 치안대책이 61%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2005년에 3위였던 고령자대책이 48%로 2위고 그 외 방재대책, 의료·위생대책, 환경대책 순이었다.

“정년퇴직 후나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증가 등 청년 실업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6%가 “사회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응답했고, 35%가 “미혼이나 저출산을 촉진시킨다”고 답했다.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형태 촉진”에 51%가, “보육소 정원 확대나 한시적 보육 충실”에 50%가 답했다.

(www.metro.tokyo.jp/INET/CHOUSA/2006/12/60gcc100.htm)

한줄 뉴스

-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市, 시청에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설치로 향후 30년간 50만 달러(약 4억 6500만 원) 비용 절감 기대

<베를린>

-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 시 분리됐던 티어가르텐 녹지공간이 최근 지하터널 완성으로 복원 중
- 2005년도 市 소재 박물관 관람자 수가 약 11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 독일 문화부 차관은 연방과 주의 박물관 경관 확충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혀
- 문화부, 2007년도 재즈음악가를 위한 장학금과 스튜디오 프로젝트 공모

5.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펀드 운용자 결정 (동경)

동경都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펀드는 비상장 지향형 기업의 사업 초기에 적합한 자금지원책으로 새로운 자금 공급 구조를 만들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 新시장 개척 지원과 기술 지원 등 동경都의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결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동경都가 이번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펀드 운용자로 (재)동경都 중소기업진흥공사를 선정한 이유는 공사가 중소기업에 관한 풍부한 서비스 실적, 지원 노하우, 기업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처 발굴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업 구조를 보면, (재)동경都 중소기업진흥공사가 동경都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을 설립해 운영한다. 동경都는 이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은 신용금고 등의 지역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조달해 프로젝트를 성장시켜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형태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2/20gcj500.htm)

6. 100여 개 기업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북경 석경산區)

현재 북경市가 진행 중인 도심지 제조업 기업의 외곽이전 정책과 지역산업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석경산區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 구성내역은 디지털 게임, 디지털 만화영화, 전자음악, 디지털 영화, 디지털 방송 등이다. 석경산區는 면적이 작고 건설에 적합한 토지가 2.74km²밖에 되지 않아 산업발전 공간 조건이 불리하다. 이런 제약조건에 맞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기업유치에 나섰다. 현재 석경산 엔터테인먼트 단지 내에 4D 영화관 등 하이테크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유치하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분야 100여 기업을 시범 단지로 유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북경市 8대 지역 특색 발전 장기계획에서도 네트워크 게임 개발 교육센터, 디지털 산업 정보센터, 인재양성센터, 만화영화 제작센터, 게임 시험평가센터 등을 설립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 2006년 6월에는 'DOTMAN 월드' 디지털 오락 기지를 개장했고, 제1회 북경 만화영화 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 또 네트워크 게임 투·융자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2006년 11월 서울과 동경에서 석경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 클러스터 설명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지역 특색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가고 있다.

(北京日報, 2006. 12. 26)

7.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직업영역 개척 지원 (동경)

동경都는 2006년부터 창업이나 다른 업종 진출, 업무 확대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 장애인을 신규고용하려는 사업주로부터 모델 사업을 모집해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제1기분에 2개 사업, 제2기분에 5개 사업을 선정해 총 7개 사업을 지원했다. 동경都는 이 사업에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2006년도 제2기 인정사업 개요>

사업명	단체명(NPO 법인)	사업 개요
고용 폭을 넓히기 위한 신체장애인 재택근무 사업	신체장애인 고용촉진 연구소 주식회사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 정리 작업을 채택고용된 장애인이 실시
정신장애인 피어(peer)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	기업조합 노협센터 사업단	정신장애인이 동일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가사,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에 힘이 돼주는 사업 전개
공공시설을 이용해 장애인을 위한 다방 사업	주식회사 월드 비즈니스 서포터	區가 운영하는 다방사업 경영을 인수해 소매사업 운영 서포터의 노하우를 활용한 세련된 점포 운영 전개
장애를 가진 사원의 보조업무 수행 '서포트 팀' 확대 사업	주식회사 벤처 링크	사내 사무적인 부대사업(파일링, 데이터 입력, DM 발송 등)을 사내 장애인으로 구성된 팀이 일괄 처리해 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와 사원의 생산성 향상 실현
오피스 마사지 사업	유한회사 포레스트 프렉티스	시각장애인 중에서 마사지 국가자격 취득자를 고용해 기업체 방문 마사지 실시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2/20gce1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우리나라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표준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7년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경영컨설팅,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해준다. 2006년 13곳이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 또한 장애인 복지기금을 활용해 매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분야를 지정 공모사업으로 정하고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동경都 사례는 이와 유사하지만, 장애인 취업이 가능한 새로운 직업영역을 개척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비 지원뿐 아니라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시 장애인 기금사업은 현재 매년 지원 사업을 공모해 당해연도만 지원하는 1회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이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성과가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김경혜 도시사회부 선임연구위원(khkim@sdi.re.kr)

8. 인터넷과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패밀리 e를’ 작성 (동경)

일본에서는 인터넷 보급에 따른 유해정보 범람과 폭력성 TV 게임, 장시간 사용 등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동경都는 어린이에게 인터넷이나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법을 쉽게 설명한 책자인 ‘패밀리 e를’을 제작했다. 이 책자는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각 학교 보호자 모임에서 ‘패밀리 e를 강좌(가칭)’를 개설할 방침이다. ‘패밀리 e를’은 그룹 활동을 통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어린이가 빠지기 쉬운 문제를 배울 수 있게 했고, 어린이와 대화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했다. 가정에서 실제로 어린이와 대화를 하면서 어린이 스스로가 선언하게 하는 형태로 규칙을 만들도록 했고,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의 규칙도 정해 놓아 효과를 높였다. 따돌림이나 현금 거래 등 시사적인 주제도 다루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2/20gce600.htm)

9. 상인협회와 시민 협조로 거리 조명축제 개최 (파리)

파리市는 2006년 12월 초부터 2007년 1월 중순까지 ‘빛의 축제’(Paris Illumine Paris)를 열고 있다. 시내의 주요 백화점과 상점뿐 아니라 각 구의 거리마다 독특한 컨셉트를 가지고 화려한 조명을 선보이고 있다. 조명축제는 파리 시청이 주관하지 않고 파리의 상인협회가 중심이 돼 시민 협조로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파리 각 구 30여 개 상인협회는 유명 조명작가 및 이미지 아티스트와 함께 각 구에 적합한 컨셉트를 정하고 직접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 4구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조명장식을 주고 창문에 달도록 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게 했으며, 12구의 아취 뒤 비아둡(Arches du Viaduc)은 길을 따라 전시된 52명의 장인 작품이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다.

(www.paris.fr)

10. 市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박물관 주변부지 매입 (베를린)

베를린市는 최근 현 독일 기술박물관 주변 일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550만 유로(약 67억 원)를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매입 예정 부지에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7년부터 도로교통이 개선되면 박물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자동차 생산 공정 전시회 개최와 에너지 경제의 미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드레 슈미츠(André Schmitz) 문화부 차관은 市가 예산 곤경에 처하더라도 문화도시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지 매입으로 박물관의 매력을 보여주고 전시회 개최와 행사 소개로 박물관의 매력도를 높여 새로운 관람층을 개척할 것이라며 이번 투자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6/12/05/51527/index.html)

11. 시민 의견에 기초한 도시 문화정책 수립 계획 (뉴욕주 오렌지카운티)

뉴욕주 오렌지카운티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주민 요구에 적합한 도시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는 정부와 시민, NGO가 함께 문화영향 관련 설문을 실시한 보고서를 출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별, 인종별, 성별 문화수준과 욕구가 다르게 나왔는데, 오렌지카운티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형평성을 고루 담은 문화정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사업을 토대로 오렌지카운티 정부는 'Strategic Plan for Art and Cultural Affairs(2006)'를 만들어 뉴욕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최초의 장기 도시문화 계획으로서 단순한 연구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Provision of New York State General Municipal Law 239-d'에 기초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더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확보와 활용방안, 문화·관광 관련 분야의 육성을 통한 도시경제의 재생 계획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은 오렌지카운티 정부의 관광부서와 계획부서에서 주요 업무로 시행하고 있다.

(www.orangearts.org/PDF/Strategic%20Plan%20Version%20August%2008%202006.pdf)

한줄 뉴스

<런던>

- 영국 재무부 예산계획 보고서에 런던을 온실가스 배출 거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포함
- 인재 양성과 고용증대 정책 시행을 위해 시장 직속 '기술과 고용위원회' 구성

<영국>

- 지방정부 토지계획 성과 향상 지원책으로 2억 8800만 파운드(약 518억 4000만 원) 예산 추가
- 리버풀 도심 수변공간인 King's Waterfront가 인프라 건설 시 친환경 기준을 준수해 친환경상 'Green Apple' 수상
- '문화적 유산의 가치 2006' 보고서에서 문화유산과 역사환경이 투자와 고급인력 유치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혀
- 도심에서 교통정체를 10% 줄이면 전체 생산성을 1.1%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주거지, 건축환경, 사회참여, 통신수단, 고용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 평등 계획안 발표
- 주택 관련 도시계획 지침을 새로 수립해 양질의 가족 중심 서민주택 공급에 박차

12. 환경교육 촉진을 위해 환경 장학금 지원 (캘리포니아주 산호세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市는 환경교육 활동을 촉진하고자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환경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장학금 제도는 교내 자원 재활용 등 환경보호 활동이나 환경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호세 시내 초·중·고교 교사, 학생, 학부모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장학금은 500달러(약 46만 원)에서 최대 2000달러(약 18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교내 자원 재활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학교에서 필요한 자원 재활용품 구입,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사나 학생에게 주는 상품 구입, 환경 관련 야외학습 비용, 환경 관련 도서나 시청각 교재 구입, 교사 연수비용, 교내 자연환경 관리에 필요한 도구 구입, 환경 활동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 등에 사용된다.

(www.sanjoseca.gov/esd/gogreen/mini-grants.asp)

>>> 전문가 검토의견

이 시책은 현재 서울의 학교 환경교육과 환경보호 활동이 미흡하므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시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율적인 환경보호 활동과 환경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또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정 목표와 부합하므로 환경분야 주요 사업으로 '학교환경 개선과 환경교육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경장학금 사업을 위해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기금 마련 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나아가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홍보하면 비용 대비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환경문제 연관 사업으로는 서울 시내 신설학교(신설 2년 내) 새학교중후군 예방을 위한 조사, 신설학교 친환경건축물 인증 추진 사업, 초등학교 교실 대기오염도 조사와 개선책 마련 등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기관지·폐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는 학생과 부모에게는 매우 소중한 정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 장학금 사업을 중심으로 연관된 주제를 고려한다면, 환경장학금과 함께 초·중등학교의 과학기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 장학금,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창의교육 장학금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청과 협력한다면 비용도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유사사업으로 광주 교육청의 광주교육환경대상 사업, 경기도 교육청의 신설학교 새환경건축물 인증 추진 사업, 충남도 교육청의 행복교실 만들기 사업 등이 있다.

/안선희 도시사회부 초빙연구위원(ash@sdi.re.kr)

13. 탄소 무배출 주택 구매에 따른 인지세 감면 혜택 추진 (영국)

영국정부는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탄소 무배출 주택(Zero Carbon House)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2007/2008년 재정연도 시작을 앞두고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탄소 무배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인지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발표했으며 국가재정계획과 연관지어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에서도 향후 10년 이내에는 모든 주택을 탄소 무배출 주택으로 건축하도록 정책을 준비 중이다.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지역계획과 기후변화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www.planningportal.gov.uk/england/government/en/1115314671432.html)

14. 우기에 대비해 하수 범람과 역류 방지 프로그램 운영 (캘리포니아주 베이 지역)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 지역은 겨울철에 약 4~5개월간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인데,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경우 하수가 넘치거나 역류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나 나뭇가지 등이 하수관을 막아 하수가 넘치거나 역류하게 된다. 베이 지역 지방정부연합은 하수 범람과 역류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세 가지 예방책을 제시했다. 첫째, 하수관을 미리 검사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500달러(약 46만 원)에서 100달러(약 93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하수관 사전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하수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셋째, 하수관을 파괴할 수 있는 뿌리가 긴 나무를 심지 않는다. 베이 지역 지방정부연합은 심지 말아야 할 나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하수 역류 방지 장치

(www.sewersmart.org)

15. 장기적으로 유효한 환경건설 시스템 가동 (북경 조양區)

2006년 7월 북경市 조양區는 8.7km에 달하는 ‘세계 청년대회 경관도로’ 개장 이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 약 167만m²에 이르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69개 시장을 개조했으며, 조양북로와 취통서대가 등 36개 도로를 특성화 녹화 도로로 개조했다. 또 웨이강 녹지와 자단궁 녹지지구 등 20여 개 녹지지구를 집중화 녹지지구로 조성했다. 28개의 낡은 거주지역을 생활 녹지환경 지구로 개조하는 등 환경건설 시스템을 가동해 조양구 환경 경관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올림픽 공원 조성의 경우 녹화 건설이 100% 추진됐고 2006년 말 녹화 환경보호형으로 포장된 11개 도로와 교량이 완성됐다. 또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올림픽 공원을 조성하는 등 올림픽 경기가 끝난 후에도 친환경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6년 조양구는 북경시가 환경네트워크 우수 시범 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장기적인 환경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北京日报, 2006. 12. 26)

도 시 교 통

16. 자동차의 유아전용 좌석 무료 점검 및 자전거 헬멧 무료 배부 (뉴욕)

뉴욕市 교통국은 2006년 12월 9일 자동차에 유아전용 좌석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무료로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뉴욕주 법에 따라 7세 미만 유아는 자동차에 탈 때는 반드시 전용좌석을 설치해야 하지만 90%가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헬멧을 무료로 배부한다. 자전거 이용자는 뉴욕市 5개 자치구마다 있는 안전한 도시(the Safety City) 프로그램 센터를 예약 방문해 안전한 헬멧 착용 및 조작방법 강의를 들으면 받을 수 있다.

(www.nyc.gov/html/dot/home.html)

17. 교통연대카드(Carte Solidarit Transport) 할인혜택 확대 (일드프랑스州)

2006년 10월 1일부터 프랑스 일드프랑스州는 극빈자보험과 같은 국가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특별 가족수당을 받는 결혼가정, 재향군인 등 사회보호 대상자를 위해 오랑쥐 카드(carte orange: 지하철 및 버스 한달 정기권)의 가격을 75% 할인해 주고 있다. 이번 정책은 기존 50%의 할인혜택이 확대된 것이며, 2007년 4월부터 무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최저 통합 수당자(RMI)는 무료가 된다.

(www.paris.fr)

18. 2006년 길 만들기 성과지표 계획 발표 (동경)

동경都 도로협의회는 2003년부터 도로정비 달성 현황을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평균 통행속도 등 도로정비 성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12개 성과지표를 수립해 활용하고 있다. 최근 2005년 달성현황과 2006년 목표치를 제시한 2006년 성과지표 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은 12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SPM* 환경기준 항목에서 100% 달성률을 보였다. 평균 통행속도(km/시간), 소음대책(km), 도보 배리어 프리(barrier-free)화(%) 등의 지표 항목은 매년 목표치를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다. 성과지표 계획에서는 성과지표의 2007년 말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2008년에 효과와 달성도를 측정, 공표해 향후 사업에 반영하게 된다.

* SPM: 부유 입자상 물질로 주로 디젤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며 토양의 비산 등 자연발생원에 의한 것도 있다.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미립자며, 직경이 $10\mu\text{m}$ ($1\mu\text{m}=0.001\text{mm}$) 이하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2/20gce500.htm)

19. 도시 교통체증 학술연구센터 설립 (북경)

북경市 교통에서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28%에서 2010년에는 4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 11월 29일 대도시 교통체증 학술연구센터가 정부의 973프로젝트 기금과 북경市 지원으로 북경 교통대학 내에 설립됐다. 이 연구센터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 산업체, 관리기구의 5대 교통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전문가집단으로 교통문제 연구의 국가대표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85명의 전임연구원과 165명의 객원연구원, 러시아 자연과학원 학자, 중국 내 학술대회 수상실적을 보유한 우수한 학자들이 참여해 도시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와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북경市 교통문제를 우선으로 연구해갈 계획이다.

(www.bjd.com.cn/bjxw/ssqx/200611/t20061130_128285.htm)

20. 거리 시설물 개선에 관한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시행 (뉴욕)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뉴욕시내 버스정류장 쉘터(Bus Stop Shelter) 3300개와 300여 개 신문가판대가 개선되고 공중화장실 20여 곳이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휴지통과 정보 키오스크, 다기능 신문선반대 설치하는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것은 뉴욕시 교통국 주관으로 시행하는 거리환경 개선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업체인 Cemusa와 협정을 맺어 2007년부터 개선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전적으로 Cemusa가 직접 디자인하고 설치해서 관리·유지하며 뉴욕시는 전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설물에 설치될 광고물 수익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식으로 기부 받게 될 예정이다.

(단위: 개소)

	2007	2008	2009	2010	2011
버스정류장 쉘터	650	700	650	650	650
신문가판대	110	110	110		
자동 공중화장실	10	10			

(www.nyc.gov/html/dot/html/permits/streetfurniture.html)

>>> 전문가 검토의견

버스정류장 쉘터를 비롯해 신문가판대, 공중화장실, 휴지통과 같은 가로시설물을 시가 직접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유지·관리하는 대신, 디자인회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디자인회사가 가로시설물의 디자인과 제작 및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은 오래 전부터 세계 여러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다. 제이씨드코(J C Decaux) 같은 회사는 세계 45개국 3500개 도시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공공예산을 절감하면서 디자인 수준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이 과도하게 설치될 수도 있어 이를 두루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석 도시계획부 연구위원(jerome@sdi.re.kr)

21. 맨해튼 3번 주거지구 리조닝(Rezoning) 계획 초안 공개 (뉴욕)

뉴욕시 도시계획국은 맨해튼 다운타운 3번 주거지구에 있는 이스트 빌리지(East Village)와 로워 이스트 사이드(Lower East Side) 지역 114개 블록 리조닝(Rezoning) 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을 보면 동서방향으로는 D가(Avenue D)부터 바우워리가(Bowery Street)까지, 남북으로는 그랜드가(Grand Street)와 델란세이가(Delancey Street)부터 이스트 13가(East 13th Street)에 걸치는 구역이 리조닝될 계획이다. 이 구역은 지난 15년 동안 주거단지 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1000여 개 주거지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이 지역에 긍정적인 재투자 붐이 조성돼 왔으나 저층인 기존 건물과 거리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고층 건물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제안된 계획안은 신축 건물의 높이와 밀도를 조절해 기존 건물과의 융합을 꾀하면서 주거용 건물과 소규모 상점의 지속적인 개발을 인가할 예정이다. 또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Affordable housing) 창출 및 보존을 위해서도 보조할 예정이다.

(www.nyc.gov/html/dcp/html/evles/index.shtml)